

동·서양 음악의 만남 “느낌이 새롭네”

흥겨운 민요 ‘군밤 타령’이 색다르게 변신했다. 25현 가야금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청아한 건반 소리가 어우러지고 거기에 콘트라베이스의 묵직한 울림이 얹히면서 전혀 다른 느낌의 연주곡 ‘바람의 나라’가 완성됐다.

홍윤진(33·가야금), 김현화(32·건반), 최동일(26·콘트라베이스)씨로 구성된 ‘루트머지’는 광주에서 활동중인 퓨전 트리오다. 25현가야금과 건반, 콘트라베이스의 결합은 광주에서는 처음 등장한 악기 조합인 터라 그들의 연주를 듣다보면 독특한 느낌을 받는다.

‘루트머지’의 출발은 홍씨에게서 부터였다. 전남대와 대학원에서 가야금을 전공한 홍씨는 ‘전통국악’이 아닌, 새로운 음악에 대한 갈증을 느껴왔다. 선후배 5명과 함께 가야금앙상블 ‘그린나래’를 만들어 활동하고 국악 실내악 그룹인 ‘도드리’ 단원으로 무대에 서며 조금씩 탈출구를 찾던 홍 씨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음악’을 꿈꾸기 시작했다.

홍씨의 ‘과감한 도전’은 MBC 음악 프로그램 ‘난장’의 영감이 됐다. 홍씨는 현재 국악 관련 음반과 자료 조사 등을 담당하는 ‘난장’의 음악코디로도 활동중이다. 홍씨는

가야금·건반·콘트라베이스 퓨전 그룹 ‘루트머지’

광주서 활발한 공연... “새로운 음악문화 만들게요”

수많은 뮤지션들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장르가 융합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만의 음악을 꿈꾸기 시작했다.

“도드리” 멤버 김 씨가 뜻은 함께 했고 광주에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콘트라베이스 주자 최씨가 의기투합했다.

그룹 이름 ‘루트머지’는 ‘뿌리’를 뜻하는 루트(root)와 ‘융합’ 등을 뜻하는 멀즈(merge)를 결합한 말로, 음악의 뿌리를 지키면서 다양한 장르적 결합을 통해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김 씨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다 음악이 하고 싶어 결혼후 다시 실용음악(남부대)을 공부한 케이스다. 최씨는 광주립으로 서울에서 활동중인 그룹 ‘순이네 담벼락’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

지난해말 모임을 꾸린 후 세 사람은 최씨가 광주에 내려오는 금·토·일요일을 이용해 연습과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생소한 악기 조합이라 이들은 상대방의 악기에 대한 특성을 함께 공부하면서 자신들만의 소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시행착오도 많이 겪는 중이다.

“루트머지”는 올 초 아시아공연예술제의 문화빌리지에 초청돼 공연을 가졌고, 대인시장 프린지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5~6월에만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공연, 죽녹원 상설공연, 광주비엔날레 공연이 예정돼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최씨의 자작곡 ‘2월 31일’을 비롯해 영화음악 OST, ‘군밤타령’, ‘뱃노래’ 등 민요를 편곡해 연주하며 점차 자신들만의 레퍼토리를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

현재 ‘루트머지’는 호주에서 열리는 퍼스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들의 연주를 담은 데모 테이프를 녹음중이다. 축제 조직위측에 자신들의 음악을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조만간 싱글앨범도 만들어 볼 계획이다.

홍씨는 “새로운 작업을 하면서 전공인 국악을 비롯해 음악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 참 행복하다”고 말했다.

“가야금과 콘트라베이스, 건반 등 구성이 독특해서 우리 그룹이 새로운 음악 장르로 받아들여졌으면 해요.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면 하는 욕심도 있고요.(웃음)”

김 씨는 자신들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감동받고 치유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 8일 가야금, 건반, 콘트라베이스로 구성된 ‘루트머지’가 연습실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



조선대미술관 ‘아름다운 영혼의 깊은 울림’展

14~23일 개관 20주년 기념... 하정웅씨 기증품 등 200여점

조선대학교미술관(관장 정운태)은 오는 14~23일까지 개관 20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영혼의 깊은 울림’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일교보 하정웅(조선대 미술학 명예 박사)씨가 기증한 소장품 등 미술관의 대표 소장품 200여 점을 선보인다. 하씨는 지난 2003년부터 이 학교에 450여 점의 작품을 기증했다.

일본에서 활동한 손아유, 광덕준, 광인식씨 등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주로 전시된다.

자유로운 추상표현주의 계열 회화와 판화 쪽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긴 손씨의 ‘색의 위치’ 연작을 선보인다. 연필, 크

레용, 수채를 이용한 자잘한 터치와 울동감 있는 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또 제일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불안한 정체성을 형상화한 광덕준씨의 ‘out time’ 연작도 전시장을 수놓는다. 캔버스 표면을 오목하게 찍어 독특한 질감을 살렸고, 신문의 일부를 직접 작품에 붙여 넣어 시대 상황을 형상화했다.

한편 지난 1989년 문을 연 조선대미술관은 ‘광주·전남 미술 50년’전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청년작가를 발굴하는 예술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의 062-230-78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손아유 작 ‘색의 위치’

제 54회 호남예술제 피아노 본선 진출자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35 양지호(광주효덕3)	42 김민주(유안6)
36 이은재(광주서4)	44 김미진(양산5)
39 허 평(진월4)	46 이채훈(수안5)
41 박소유(금구4)	48 김요섭(화산만연5)
43 홍수빈(목포신흥3)	50 오성주(광주양산5)
44 김지명(금구4)	51 김동민(유안6)
45 김영서(만호3)	52 오정인(선창5)
46 김다은(목포청호4)	58 장다은(화산5)
47 임세경(계성3)	61 조수영(화산제일6)
48 황승연(태봉4)	63 이다혜(광주송원6)
49 장수연(선창4)	65 백은진(월곡5)
56 주민지(봉산4)	67 정지수(만호6)
57 이은서(광주송정3)	69 이선우(광양마동5)
58 박나영(목포신흥4)	70 박소진(광주진계5)
60 김성연(화화4)	72 김수진(매곡6)
61 전재원(목포미항4)	73 김자현(여수도원5)
65 이서현(전주인봉4)	78 정희호(문화5)
67 이소민(주월3)	79 이소영(유안5)
76 박수현(광산지곡4)	81 양진산(광주효덕5)
79 최환욱(선창4)	83 임다은(유안6)
81 임예람(광주양산4)	84 김고은(장원5)
82 강로빈(봉산4)	86 이수현(녹동5)
83 이다연(녹동4)	87 김현지(광주신암5)
90 공성민(유동3)	91 백시현(풍영5)
	92 이지혜(봉산5)
	99 박하민(해남서6)

92 안희연(목포연산3)	101 조현화(광주신암6)
96 이창호(풍영4)	112 송명기(광주서석6)
97 노현영(운리3)	113 위승민(광주장원6)
99 박민우(광주송원4)	115 송은아(고창6)
103 장세운(광주풍향4)	116 고정연(살레시오6)
110 이단비(운남4)	118 김채연(광주미산6)
111 김유선(광주장원4)	120 유영창(어룡6)
113 김대영(군산지곡4)	128 장연지(화산만연5)
115 서정우(문산4)	132 임지은(목포동5)
118 박수연(광주봉산4)	135 양주리(목포신흥5)
120 조명섭(영광4)	137 노수빈(일곡6)
123 마준희(태봉4)	142 최보금(치평6)
125 이한이(목포미항4)	143 김수민(목포신흥6)
129 오수빈(나주4)	147 김하연(광주봉산5)
135 박수진(동림3)	149 윤에서(군산수송5)
137 박민서(목련4)	151 김성은(월봉5)
138 홍수정(목포서해3)	152 이하영(선창5)
139 이명경(금구4)	153 임수현(삼각6)
140 정효인(동림3)	
142 김유빈(목포부영4)	
143 김승희(여수여도4)	
145 김정우(태봉4)	
146 송준서(학운4)	

※ 발표된 순서에 의해 본선 경연을 합니다. 본선은 5월 16일(토) 오후 1시 30분(3·4학년)과 오후 3시 30분(5·6학년)에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에서 진행합니다.

방정환 아동 문학상 이성자씨



제19회 방정환 아동 문학상 동화부문 수상자로 이성자(광주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시인)씨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동화집 ‘뭐가 다른데?’(문원 펴냄). 이 씨는 영광 출신으로 아동문학평론신인

상, 동아일보신춘문에 당선되었으며 한경동아 동문학상 등을 받았다. 지은책으로는 동시집 ‘너도 알 거야’ ‘키다리’가 되었다가 난쟁이가 되었다가, 동화집 ‘내 친구 용환이 삼촌’ 등이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43년 전통의 한국전화번호부(주)

한국전화번호부(주)는 43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전화번호부 제작 및 유통 회사입니다. 전국 1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고 접수

전화번호부(주)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가요?

문의: 032-1144, 080-777-1144

광고 문의

032-1144, 080-777-1144

2008년 10월 10일 발행